

이사야서 53장의 그리스도

성경말씀: 사53:1-12

유대인들: 매주 회당에 모여 성경을 읽음. 성경 읽기 플랜. 10월 중순(시민력 1월)부터 다음해 10월 중순까지. 모세5경(토라)과 대언서(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 이사야-말라기).

8월에는 이사야의 대언서를 읽으며 셋째 주는 이사야서 52장 10절까지 읽고 넷째 주는 이사야서 54장부터 읽음. 따라서 이사야서 52장 13-15(3절)과 53장은 그냥 넘어감. 그 이유가 무엇인가?

랍비들은 자기들이 성경 전체를 다 읽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고대에는 53장을 읽었음.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 마디로 그들은 유대교 신자들이 53장을 접하는 것을 원치 않음. 종교에 속한 사람들의 특성.

이사야서 53장은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음.

사도행전 8장에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사야서 53장을 읽는 장면이 나옴.

그는 사53:7-8을 읽고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고 싶어 함.

그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지금 이사야서를 읽다가 빌립의 지도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음.

이사야서 52장 13-15절

실제로 이사야서 53장은 52장 13절부터 시작됨.

13절: 빌2:5-11

14절: 시22:6과 상통함, 사49:7

15절: 많은 민족들에게 뿌릴 것이며(he shall sprinkle many nations) 'sprinkle'이라는 단어는 구약에 24회 나오는데 대부분이 유대인들의 희생 제사에서 피나 물을 뿌릴 때 사용됨. 따라서 이 말은 "모든 민족들에게 피나 물을 뿌릴 것이며"로 해석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주석서들이 원어의 뜻을 따라 그렇게 해석하고 있음. 그러므로 이것은 그분의 죽음이 유대 민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많은 이방 민족들을 위한 것임을 가리킴. 그 다음 부분이 이를 지지함.

그 결과: 왕들이 흠모한다. 성육신, 십자가 사건, 부활, 휴거, 천년왕국 통치

이사야서 53장

1-3 그 종의 복종, 4-6 그 종의 대속의 죽음, 7-9 그 종의 고통, 10-12 그 종의 만족

1-4 그분의 생애와 사역, 5-8 죽음, 9 장사, 10-12 부활과 영광 받음

1절: 누가 믿었느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믿지 않음. 요12:37-38, 롬10:16, 고전1:19-24

그들에게는 주의 팔이 나타나지 않음. 사52:10 모든 민족들에게 자신의 팔을 드러내심.

arm은 무기, 힘을 나타냄, 창조 손가락으로(시8:3), 이집트 탈출은 손으로(출13:3)

죄인들 구원은 팔로

2절: 그분은 사람으로 자라난다. 마리아와 요셉은 매우 가난했음(눅2:24). 무명의 나사렛 목수

3절: 떨시하고 은 서튼 개에 팔아넘김(마27:9), 요셉은 20개, 그저 노예 수준

4절: 출애굽기 12장의 어린양, 벰전3:18

5절: 단9:24, 창3:15, 벰전2:24

6절: 벰전2:25

7절: 행8:32-33, 어린양

8절: 시22:12-14, 마1:1, 그 세대

9절: 두 강도, 아리마대 요셉

10절: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공의 만족(행2:22-23), 죄 헌물, 화목 제물(요일2:1-2; 엡2:13-14)

자기 씨를 보며 자기 날들을 길게 한다. 영원히 산다.

11절: 요17:3(지식), 빌3:8-10, 사45:25, 롬3:22-24

12절: 눅23:34, 히7:25, 히9:24

편견이 없다면 누구라도 사53은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말할 것이다.

쌔 스텐(Rabbi Sam Stern): 폴란드의 유대인 랍비

1939년 2차 세계대전, 6년 동안 600만 명, 전 세계 유대인 삼분의 일 멸절

2차 세계대전 이후 포로수용소에서 나와 친척들을 찾기 위해 신문에 광고를 낸

한 명도 없음, “왜 삼분의 일이 죽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있다면 왜 침묵하시는가?”

그 뒤 1952년에 미국으로 오기까지 독일에서 랍비로 유대인 도움 사역

유대인들에게 탈무드의 가르침을 전하면서 항상 고민: “왜 600만 명이 죽어야 하는가?”

유대인들이 생존하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고 가르침, 그 600만 명의 99%가 지켰으나 죽음

그렇게 가르치면서도 확신이 없고 탈무드 전통, 법규에 대한 의심

유대인들은 회당에 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함. 이것도 안식을 주지 못함

인간에 대한 신뢰, 유대교 전통에 대한 확신이 사라짐

미국 로드아일랜드로 이민, 유대인 청년/그리스도인을 뉴욕에서 만남, 아직 영어를 못함

자기가 시를 지었다고 하면서 시를 낭송함, 시의 제목 <고난당하는 자>(Sufferer), 실제로는 사53장

읽고 나서는 이 시의 주인공이 누구냐고 물음, “예수 그리스도인 것 같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이다. 이것을 그대로 낭송한 것이다” 깜짝 놀람

지금까지 토라, 대언서를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함.

다음 날 다른 랍비에게 53장을 보여 주었는데 그도 모름

문제: 유대인들과 랍비들은 심지어 자기들의 성경도 제대로 모른다.

<빛의 승리>(Victory of Light)

그는 구약성경에서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에티오피아 내시도

구약 성경은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 말한다(눅24:44; 요5:39; 딤후3:15)

이것은 특별히 52장과 54장 사이에 들어 있다.

사53장은 과거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회개의 노래가 될 것이다(슌12:10; 롬11:26)

십자가, 수많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특별성, 영적, 감정적 아픔의 극치(10절).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다(고후5:21).

고난 다음에 영광이 있다.

지옥의 고통 이후에 메시아의 만족이 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이다(롬8:18). 고후4:17-18; 히12:2